

# 투명성 · 책임성 높인다 전북교육청, 자체감사 시행

올해 종합감사 53개 기관 대상... 사전 예방 · 현장지원 중심에 초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다양성과 감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현장 지원 및 예방 감사로 전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소통과 참여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자체감사는 현장지원 중심의 예방감사와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전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현장 지원 중심의 사전예방 감사 △자율적 내부 부패통제 시스템 강

화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 기강 확립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감사는 감사주기(3년) 및 기관(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총 53개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학교 스스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개선하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외에도 특정감사, 복무감사, 민원·사안조사, 사이버감사, 일상감사, 계약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감사를 병행해 감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 '성과향상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 표창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에는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연수와 기관 및 학교의 눈높이에 맞춰 예방감사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진수당 개교 77주년 기념홀에서 '동문대상 시상식 및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최병선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동문들,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대 동문들, 새해 새 도약 다짐

동문대상 시상식 · 신년교례회 열려  
김양수 · 정강선 · 간바타르 '동문대상'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진수당 개교 77주년 기념홀에서 '동문대상 시상식 및 신년교례회'를 열고,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선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양모봉 총장, 두재균·이남호 전임 총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교육청 장관, 정현을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동문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이원택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다. 또한 김관영 국토부 장관과 한병도·이성윤·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행사는 올해의 동문대상 시상식과 축하공연, 신년 인사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동문대상은 전북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1988학번인 김양수 한국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수상했다.

김 연구원은 국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성과 최고 영예인 과학기술훈장 응비장을 수훈하며 전북대 동문의 학문적 역할을 국가적으로 입증했다.

공로상은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이 받았다. 정 회장은 민선 1·2기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을 역임하며 200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전북이

선정되는 데 기여했으며,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외동문특별상은 전북대 경제학과 2010학번인 간바타르 자르갈 사 이항 몽골 울란바토르시 비안주르 호구 구청장이 수상했다. 간바타르 구청장은 해외 동문으로서 전북대의 위상을 높이고, 졸업 이후에도 모교의 우수한 교육 여건을 몽골에 적극 알리며 전북대 진학 확대와 한·몽 간 교육·인적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병선 회장은 "오늘 동문대상을 수상하신 세 분의 발걸음은 우리 전북대 동문 모두의 자부심이며,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며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 간 연대를 단단히 하고, 재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다리가 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무기체계 자립도' 새 지표 제시

전북대 방산융합과정 소속 고동현 · 신채이 학생  
부품 국산화를 한계 넘어선 평가 틀 제안 논문 발표



고동현 신채이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존 평가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체계 자립도' 지표를 제시하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대 방위산업 융합과정 소속 고동현·신채이 학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논문을 국제 방위산업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연구논문 등재지)에 게재했다.

이번 논문은 그동안 대한민국 무기체계 국산화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돼 온 '부품국산화율' 지표가 완제품 또는 부품 중심의 단일 수치에 머물러 왔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소재(Material)·부품(Component)·기술(Technology)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자립도 지표'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 비율이 아닌, 무기체계 전반의 실질적인 기술·산업 자립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평가 틀을 제안했다. 특히 기존 지표가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 소재와 원천기술의 취약성, 공급망 구조 및 기술 통제 리스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소재와 핵심기술,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국내 무기 개발과 국산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존의 단순한 '부품 국산화율' 개념을 넘어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부품·소재·기술을 세 개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공급망 집중도와 특정 국가 의존도를 가중치로 반영한 점이다. 이를 통해 소재 경쟁력과 핵심기술의 국내 축적 수준, 기술 통제 및 공급망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평가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일반 산업 분야에서 활용돼 온 자립도 분석 기법을 방위산업 특성에 맞게 수정·적용해, 방위산업에 특화된 자립도 개념과 분석 틀을 정립하고 세부 지표를 하나의 복합 지표로 통합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무기체계 자립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위산업 자립 전략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2025년 신실년 전북대 방위산업 융합과정 교육과정의 가치

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고동현·신채이 학생은 재학 중 방산정책과 첨단기술, 글로벌 역량을 아우르는 교과목 이수에는 물론,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증 과정과 K-방산 포럼, 전문가 특강 등에 참여하며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왔다.

이 연구는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장원준 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됐으며, 이론과 정책 현장을 아우르는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기존 평가 체계의 한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K-방산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고동현·신채이 학생은 "첨단산업 분야인 방위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과 학과가 전북대에 신설돼 학생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를 실제 무기체계 데이터를 적용한 실증 분석으로 더욱 확장시켜 대한민국 방위산업 자립 수준을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학교 중심 동계스포츠교육 기반 활성화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23일까지 스키 선도교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동계스포츠 교육 기반 구축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9~23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2026년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키 선도교원 연수를 27에 걸쳐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 → 학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참여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외부 위탁 중심의 일회성 체험을 넘어, 학교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동계스포츠 교육 체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서는 14개 각 시군에서 선발된 초·중등 선도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스키 실기 지도 및 안전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스키·스노보드 협회와 협력해 수준별·소그룹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연수를 통해 양성된 선도 교원들은

단위 학교에서 학생 대상 동계스키 캠프,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스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체육 시설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학교 교육과 지역 자원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선도교원 네트워크 운영과 현장 적용 사례 확산을 통해 동계스포츠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학생 중심 학교 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선도교원 연수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동계스포츠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도교원 양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학교 중심 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동계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 IR 시스템 구축  
중간보고회 · 사용자 교육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5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IR 시스템 구축 중간보고회 및 사용자 교육을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 대학 경영 혁신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8월 착수한 IR 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범 운영을 앞두고 교직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군산대에서는 구축 중인 IR 시스템은 행정 효율화와 과학적 분석을 핵심 축으로 설계했다. 성과관리 부문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50여 개의 행정 기능을 구현해 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학 경쟁력의 주요 지표인 취업률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각 학과가 데이터에 근거해 보다 정교한 취업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분석 부문에서는 학사, 연구, 산학협력, 입학 취업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77개 영역의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W)와 데이터 마트(DM)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핵심 경영 지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교내의 데이터를 연계한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과 대학 미래 지표 예측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찬원 기자

## 2026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 발표

전년대비 신입생 691명 감소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신영)은 2026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진학 대상자는 모두 6,153명으로 지난해 대비 691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와 체육특기자, 중대질병대상자, 다자녀가정 학생, 장애부보 봉양학생 등 1,273명은 입학추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추첨 배정했다.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결과 1지망 배정률이 93.39%로 전년도에 비해 2.39%p 증가했으며, 3지망 배정률은 99.77%로 전년도보다 0.27%p 증가했다.

배정 결과는 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조회 가능하며, 학생들은 해당 초등학교를 통해 개인별 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오는 20일부터 배정받은 중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여해 입학 안내를 받아야 한다.

/김재훈 기자

## 전주비전대, 대학 차원 통합 성과관리 체계 전환 본격

혁신 · RISE · 신산업 · 혁신융합대학 성과 통합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충남 대전 한화리조트에서 '재정지원사업 통합 성과 공유·확산 워크숍'을 열고, 대학 차원의 통합 성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RISE 사업과 신산업(이차전지) 특화사업, 첨단분야(에어로) 혁신융합대학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다수의 국고 재정지원사업 성과를 하나의 전략 체계로 연계·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각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단위 사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 혁신 전반의 성과로 관리·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정지원사업은 사업단별로 운영되며 성과 역시 개별적으로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성과가 대학 전체 경쟁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주비전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학 차원의 통합 성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각 사업단은 △교육 혁신 △학생 성공 △산학협력 △지역 기여 △재정 효율성 등 공통 성과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방향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개별 사업의 단순 실적을 넘어, 각 성과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발전 전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핵심 논의로 삼아 성과 중심의 대학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워크숍에서는 AI 시대 고등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행정 혁신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리더십 강화 특강과 함께 전기공학과 김대준 교수(AI연구센터장)가 구축·운영 중인 AI 교육 플랫폼(GPT-V) 사례가 공

유되며,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 성과와 향후 확산 가능성이 제시됐다.

대학은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교육 품질 개선과 행정의 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과 공유·확산 워크숍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자율 혁신과 성과 기반 재정지원 정책을 대학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비전대는 개별 재정지원사업 성과를 대학 차원의 전략 체계로 연계함으로써 국고 재정지원사업이 대학 중장기 발전과 지역 산업 수요에 직접 기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했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사업 성과의 대학 차원 연계 강화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동된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 △우수 성과의 대외 확산과 벤치마킹 모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전문대학 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